

人蔘陳皮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

이한신 · 이준희 · 김달래 · 고병희 · 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한의학과 체질의학전공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Origin, Change of the Time and Constructive Principle of Insamjinpi-tang(人蔘陳皮湯)

Han-Shin Lee*, Jun-Hee Lee, Dal-Rae Kim, Byung-Hee Koh, Eui-Ju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 Objectives

This paper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origin, changes and the constructive principles of *Insamjinpi-tang*(人蔘陳皮湯)

2. Methods

Insamjinpi-tang and other related prescripti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pathology, based on 『Dongyisebowon-Chobongwon(東醫壽世保元·草本卷)』, 『Dongyisebowon-Gabobon(東醫壽世保元·甲午本)』, 『Dongyisebowon-Sinchukbon(東醫壽世保元·辛丑本)』, 『Donguisasangsinpyeon(東醫四象新編)』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origin of *Insamjinpi-tang* is *Doksamyangbung-tang*(獨蔘良崩湯), which is combination of *Yijung-tang*(理中湯), and *Insamkeji-tang*(人蔘桂枝湯)
- (2) The origin of *Insamjinpi-tang* was derived from *Doksamyangbung-tang* of 『Dongyisebowon-Gabobon』. *Insamjinpitang* greatly increases Ginseng *Radix Alba*(人蔘) when *Insamjinpitang* was compared with *Yijung-tang*, *Insamkeji-tang*. *Insamjinpitang* put to use *Amomi Fructus*(砂仁) newly first.
- (3) The *Insamjinpitang* composed of 5 herbs, *Ginseng Radix Alba*(人蔘), *Zingiberis Rhizoma Crudus*(生薑), *Citrus unshiu*(陳皮), *Zizyphus jujuba*(大棗) and *Amomi Fructus*(砂仁); *Ginseng Radix Alba*(人蔘) and *Zingiberis Rhizoma Crudus*(生薑) treat Taeumjeung(太陰證) of Soeumin(少陰人) through warming the Stomach(溫胃), *Citrus unshiu*(陳皮) makes the Yin(陰) downbearing, *Zizyphus jujuba*(大棗) making harmony between innerside and outerside of body and *Amomi Fructus*(砂仁) making stable one's mind.

Key Words: *Insamjinpi-tang*, *Yijung-tang*, *Insamkeji-tang*, *Doksamyangbung-tang*.

• 접수일 2011년 05월 12일; 심사일 2011년 05월 12일;
승인일 2011년 06월 13일
•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khu.ac.kr

I. 緒 論

人蔘陳皮湯은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가운데 하나로 未周年 小兒陰毒慢驚 하는 증세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太陰病 陰毒證은 少陰人 6대병) 중에 하나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陰毒證 발생기전을 보면 陰毒證이 太陰病 腹痛 下利가 오래되고 下利가 나면서 병이 풀려야 하는데 병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²⁾이라 했다. 즉, 脾胃가 약한 소음인이 오래된 泄瀉로 인해 慢驚風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慢驚風의 病理를 살펴보아도 先天稟賦不足 체질허약과 急驚風 失治로 인해 俊利를 시켜서 脾胃가 크게 손상 받았거나, 大病 후나 吐瀉 후 혹은 다른 병이 있을 때 攻伐過多로 精氣虛弱을 일으켜 발생되거나, 急驚風의 사기가 속으로 들어가 心火가 치성하고 脾虛痰盛이 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보았다.³⁾ 실질적으로 吐瀉나 오래된 泄瀉가 소아 慢驚風의 주된 원인이다.

실제 임상에서 만성질환인 陰毒證을 치료하고 시험하기는 어렵지만, 陰毒證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慢性下利의 환자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즉, 환자가 重證인 陰毒證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성설사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들기 전에 치료하라는 한의학의 기본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소음인 육대병 중에 하나인 陰毒證의 처방인 人蔘陳皮湯의 基源과 變遷 處方의 構成原理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목표로 하며, 이 연구에 따라 얻은 소견을 다음에 따라 정리한다.

II. 研究方法

문헌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에서 발행한 2009년도 『四象體質科 臨床便覽: 四象醫學 文獻集(改訂版)』¹⁾을 기준으로 하였다.

-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이하 『辛丑本』)에서 人蔘陳皮湯과 관련된 조문을 찾아 시대별 분석한다. 즉, 秦漢시대의 張仲景 傷寒論에서 기원처방을 살펴 보고, 宋元明 後代醫家에서 기원처방 및 변천처방을 찾아 비교 분석하였다.
- 『東醫四象新編』에서 人蔘陳皮湯과 관련된 처방인 獨蔘良崩湯과 人蔘桂皮湯의 처방을 참고하였다.
- 『傷寒論』에서 桂枝人蔘湯에 대해 조문과 처방을 참고하였다.
- 處方의 구성원리는 기원처방 및 변천과정을 통한 體質病證을 치료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약물구성간의 구성원리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人蔘陳皮湯에 대한 것으로 『甲午本』과 『辛丑本』 본문에서 음독증의 처방으로 제시된 『甲午本』 獨蔘附子理中湯과 『辛丑本』 人蔘附子理中湯은 附子가 가미된 처방으로, 小兒泄瀉慢驚風을 치료하는 『甲午本』에서의 獨蔘良崩湯과 小兒陰毒慢驚風을 치료하는 人蔘陳皮湯과는 변천과 발전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獨蔘附子理中湯과 人蔘附子理中湯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III. 研究結果

人蔘陳皮湯의 구성과 효능과 관련하여 기원방으로 는 張仲景의 『傷寒論』 가운데 理中湯⁴⁾과 桂枝人蔘湯⁵⁾(신축본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

1) 『辛丑本』 少陰人 泛論 8-5 少陰人病 有六大證 一曰 少陰病 二曰 陽明病 三曰 太陰病 陰毒證也 四曰 太陽病 厥陰證也 五曰 太陰病 黃疸證也 六曰 太陽病 胃家實證也

2) 『甲午本』 7-32 論曰 太陰病之有陰毒證猶太陽病之有厥陰證也 太陽病 惡寒汗出則 當解而 惡寒汗出 病不盡解而半解者 日久 當解而 不解則 其病 變爲厥陰證也 太陰病 腹痛下利則 當解而 腹痛下利 病不盡解而半解者 日久 當解而 不解則 其病 變爲陰毒證也 此二證 四五日間 用藥則 必不至危殆 太陽病 惡寒汗出而病不解者 四五日 當用 桂枝湯 太陰病 腹痛下利而病不解者 四五日 當用 理中湯

3) 김덕곤외 9명. 동의소아과학. 서울:도서출판 정담. 2002: 389p-391p

4)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 方 理中湯: 人蔘, 白朮, 乾薑 各 2錢, 炙甘草 1錢

5) 『傷寒論』 163條 太陽病, 外證未除, 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者, 桂枝人蔘湯主之.

Table 1. The Constituent Medicaments of the Origin Prescription and the Change Prescription of *Insamjinp-i-tang*(人蔘陳皮湯)

張仲景 傷寒論		甲午本		辛丑本	藥性歌
理中湯	人蔘桂枝湯	獨蔘良崩湯	獨蔘湯加味方	人蔘陳皮湯	
人蔘1.5	人蔘1.5	人蔘10	人蔘10	人蔘10	補脾和脾
					脾元帥之藥
乾薑1.5	乾薑1.5				溫肉裏
		當歸1			壯脾而內守之力
		生薑2	生薑1	生薑1	-
白朮1.5	白朮1.5				建脾直脾
		陳皮1	陳皮1	陳皮1	錯綜脾氣之參伍勻調
			砂仁1	砂仁1	定氣定魂
炙甘草2	炙甘草2				固脾立脾
		大棗2枚		大棗2枚	-
	桂枝2				-
		桂皮			壯脾而內外充足之力
太陰證 腹痛自利不渴 下利不止	太陽病誤下下 利不止	小兒泄瀉慢驚風	霍亂關格病	小兒陰毒慢風	

* 약재명 옆의 숫자는 용량을 의미하며, 단위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錢을 생략한 것임.

驗設方 二十三方에서는 人蔘桂枝湯으로 쓰고 있다.)이 있으며, 변천방으로는 『甲午本』의 獨蔘良崩湯이 있다. 또, 霍亂關格病에 쓰는 獨蔘湯加味方⁷⁾이 있는데 人蔘陳皮湯과 처방구성이 매우 유사해서 참고적으로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각 처방의 약제 구성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1. 人蔘陳皮湯 基源

1) 張仲景의 『傷寒論』의 理中湯과 人蔘桂枝湯

(1) 理中湯

『辛丑本』에서는 太陰病에 理中湯과 四逆湯을 쓴다⁸⁾는 상한론의 내용을 인용했고,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에서는 太陰病을 치료하는 理中湯⁹⁾을 소개했다.

桂枝人蔘湯方 桂枝四兩去皮 甘草四兩炙 白朮三兩 人蔘三兩 乾薑三兩

- 6) 『甲午本』 新定少陰人病應用藥二十二方 獨蔘良崩湯 人蔘一兩 生薑二錢 當歸·桂皮·陳皮各一錢 大棗二枚 治小兒泄瀉慢驚風
- 7) 『辛丑本』 7-17中 又少陰人小兒一人下利清水 面色青氣陷如睡 用獨蔘湯 加生薑二錢 陳皮 砂仁 各一錢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 8)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裡寒病論』 7-1 張仲景曰 太陰之證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7-2 腹滿時痛 吐利不渴者 爲太陰 宜四逆湯 理中湯
- 9)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 理中湯：人蔘，白朮，乾薑 各 2錢，炙甘草 1錢

『甲午本』에서는 陰毒證이 되기 전에 理中湯을 써서 위대한 지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¹⁰⁾ 理中湯은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에서 보면 人蔘 白朮 乾薑 炙甘草로 구성되어있으며, 또, 甲午本의 獨蔘良崩湯과 비교해보면 人蔘만 일치하고 있으며, 乾薑 白朮 甘草 등은 獨蔘良崩湯에 적용되지 않았다. 辛丑本 人蔘陳皮湯과 비교해도 역시 人蔘一味만 일치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으로 乾薑은 인삼진피탕에서 축냉지력을 강화한 처방인 인삼계피탕에서 사용되고 있다. 理中湯은 陰毒證으로 병이 발전하기 전에 치료하는 처방으로 裏寒證의 太陰病 초기의 팻속이 차서 오는泄瀉 慢性下利 冷陰泄瀉 胃無力이나 胃酸不足에 쓰는 처방이다. 또, 東武는 설사를 오래하고도 병이 풀리지 않으면서 설사가 계속 지속되면 陰毒證으로 변한다고 했으며 이것은 理中湯으로 치료한다고 했다.¹¹⁾

(2) 人蔘桂枝湯

- 10) 『甲午本』 7-32 論曰 太陰病之有陰毒證... 중략... 太陰病腹痛下利則 當解而 腹痛下利 病不盡解而半解者 日久當解而 不解則 其病 變爲陰毒證也 此二證 四五日間 用藥則必不至危殆 ... 중략... 太陰病 腹痛下利而病不解者 四五日 當用 理中湯

11) 10)와 동일

人蔘桂枝湯은 表에 外熱이 있음에도 瀉下시켜서 下利가 생기고 下利가 그치지 않은 것¹²⁾과 下利로 인해 心下痞硬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表熱과 裏冷의 兼治를 고려한 처방이다. 『辛丑本』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 二十三方』에 人蔘桂枝湯과 理中湯을 비교해보면 理中湯의 人蔘 乾薑 白朮 炙甘草 등 4종의 약제가 모두 포함되어있고, 여기에 桂枝 一味만 추가가 되었다. 약제의 구성상 桂枝와 甘草가 다른 약제와 비교해서 3분 정도 더 들어가는 등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理中湯의 모든 약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人蔘桂枝湯은 理中湯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人蔘桂枝湯도 평소에 裏寒證 만성설사와 소화기가 약하고 脾胃가 虛寒한 太陰證의 사람이 感氣 등의 표의 울체를 겸한 증세에 걸렸을 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즉, 人蔘桂枝湯은 表裏를 모두 푸는 처방이다. 다음에 살펴 볼 변천방인 獨蔘良崩湯에서 당귀와 계포 등으로 표리를 모두 치료하려 했듯이 人蔘桂枝湯에서 桂枝도 역시 표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표리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人蔘陳皮湯의 변천

1) 『甲午本』의 獨蔘良崩湯

『甲午本』의 獨蔘良崩湯을 구성하는 약물들¹³⁾ 살펴보면 人蔘 生薑 陳皮 大棗 當歸와 桂皮로 구성되어있다. 獨蔘良崩湯이라는 처방명에서 볼 수가 있듯이 獨蔘 즉, 人蔘이 1兩으로 대량 첨가되었다. 人蔘 生薑 陳皮 4종의 약물은 人蔘陳皮湯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桂皮와 當歸는 人蔘陳皮湯에서 빠지게 된다. 獨蔘良崩湯의 치료는 小兒泄瀉慢驚風으로 오랜 설사로 인해 발병된 慢驚風을 치료한다. 小兒의 慢驚風 치료에서 脾胃와 관련된 변증의 병기를 보면 오랜 泄瀉가 있으며, 처방도 주로 비위의 虛寒을 제거하는 소음인 약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12) 『傷寒論』 163. 太陽病, 外證未除, 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者, 桂枝人蔘湯主之.

13) 『甲午本』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 獨蔘良崩湯 人蔘 一兩 生薑 二錢 當歸 · 桂皮 · 陳皮 各一錢 大棗 二枚 治小兒泄瀉慢驚風

14) 김덕근의 9명. 동의소아과학. 서울:도서출판 정담. 2002:

(1) 獨蔘良崩湯에서 桂皮와 當歸

獨蔘良崩湯에서는 桂皮와 當歸가 처방구성에 들어있는데 桂皮는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壯脾而內外充足之力이라 했고, 當歸는 壯脾而內守之力이라고 했다. 當歸는 소음인 裏證의 처방에서 거의 빠져있으며, 當歸白夏烏貫中湯에만 들어가 있다. 裏證의 처방에서 當歸가 빠져있는 것은 裏病證에서 溫胃와 健脾降陰만으로도 升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며²⁾, 桂皮는 鬱狂症 中證이상과 亡陽證과 裏證에 사용되었고, 當歸보다 升陽의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當歸와 桂皮의 사용조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약물 모두 升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表가 병들었을 때 사용하며 이에 桂皮는 表와 동시에 內外가 좀 더 손상받은 것을 치료하며, 내부에 정체된 寒邪와 부족한 腎陽을 모두 치료하여 內外를 동시에 치료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면 獨蔘良崩湯에서 當歸는 表를 푸는데 주로 사용된 것이고, 桂皮는 表裏를 동시에 치료하고자 한 것이다.

2) 『甲午本』의 獨蔘湯加味方

참고로 살펴 볼 『甲午本』의 獨蔘湯加味方은 太陰病 霍亂關格病에 나오는 처방이다.¹⁵⁾ 처방구성은 人蔘 生薑 陳皮 砂仁으로 人蔘陳皮湯과 비교하여 獨蔘湯加味方에는 大棗2枚가 빠져있다. 또, 獨蔘湯加味方은 生薑을 2錢 사용하고 있고, 人蔘陳皮湯은 生薑을 1錢만 사용하고 있다. 처방구성만 보면 辛丑本의 人蔘陳皮湯과 거의 유사하다. 獨蔘湯加味方은 참고로 할 뿐 따로 고찰하지는 않았다.

3) 『辛丑本』의 人蔘陳皮湯

(1) 『辛丑本』의 人蔘陳皮湯의 이전의 기원방 변천방과 다른 점은 獨蔘良崩湯과 비교해보면 砂仁과 大棗2枚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며, 獨蔘良崩湯의 桂皮와 當歸는 人蔘陳皮湯에서 빠지며,

389p-391p 난간리비탕(계지, 건강, 인삼, 복령, 백출, 산약, 백편두, 백작약, 감초, 대조)고진탕(인삼, 복령, 백출, 감초, 황기, 산약, 육계, 포부자)

15) 『甲午本』 7-64 ... 중략.. 又少陰人 小兒 一人 下利清水 面色青 氣陷如睡 用 獨蔘湯 加生薑二錢 陳皮 砂仁 各一錢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生薑도 2錢에서 1錢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獨蔘良崩湯과 人蔘陳皮湯은 모두 人蔘1兩을 쓰고 있으며, 陳皮와 生薑 大棗는 獨蔘良崩湯에서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砂仁이 추가된 점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

IV. 考 察

1. 人蔘陳皮湯의 기원

1) 張仲景 『傷寒論』의 理中湯과 人蔘桂枝湯.

(1) 張仲景 『傷寒論』의 理中湯

『傷寒論』의 理中湯은 太陰病의 기본처방으로 太陰病 輕證과 重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理中湯이 太陰病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理中湯은 溫胃 해서 寒邪를 몰아내는 대표적인 처방이면서, 주로 溫性藥材인 人蔘 白朮 乾薑 甘草로 구성되어있어서 太陰病 치법의 기본인 溫胃의 정신에 맞기 때문이다. 人蔘은 補脾和脾하고 白朮은 健脾直脾 하고 乾薑은 溫肉理 하고 甘草는 固脾立脾하는 약성을 갖고 있다.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의 유지와 보전에 가장 기본적인 약재¹⁾인 人蔘 白朮 炙甘草를 포함하고 있는 理中湯은 태음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溫胃해서 中焦의 寒을 다스리고 리한을 풀어 降陰하는 것이 『東醫壽世保元』의 太陰病治法에 기본이다.¹⁶⁾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傷寒論』의 理中湯은 溫胃하는 작용을 강화한 처방으로 온위에 충실한 처방이지만 降陰하는 약물 즉, 順氣하고 結滯를 푸는 약물구성이 없다. 이에 東武는 『甲午本』 獨蔘良崩湯에서는 陳皮를 구성하고, 人蔘陳皮湯에서는 砂仁和 陳皮를 처방에 구성해서 溫胃뿐만 아니라 順氣하고 寒邪의 結滯를 푸는 약물을 구성해서 溫胃而降陰이라는 태음병치법의 정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16) 『辛丑本』 7-11 論曰 病發於陰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 當用 藿香正氣散而 反用 大黃下之謂也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則 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汗下 元非可論 少陰人病 下利清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2) 張仲景 『傷寒論』의 人蔘桂枝湯

人蔘桂枝湯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理中湯의 약물 구성인 人蔘 白朮 乾薑 炙甘草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桂枝가 추가된 처방이다. 人蔘桂枝湯에서 桂枝를 살펴보면 方藥合編 藥性歌에서 手臂痛, 止汗 舒筋 手足痺痛¹⁷⁾의 증세를 풀고, 氣味가 輕薄하여 表部의 邪氣를 發散시킨다고 했다. 또한 少陰人에 있어서는 解肌之劑로 쓰이니 표증의 身痛이나 感冒 증세가 있을 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人蔘桂枝湯은 太陰證을 푸는 理中湯의 의미와 表를 푸는 桂枝가 들어있는 것으로 表裏가 모두 병들었을 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獨蔘良崩湯에서 桂皮와 當歸로 표의 승양을 이루려는 생각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表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下利를 시켜서 裏氣가 심하게 손상받은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 人蔘桂枝湯이다.¹⁸⁾ 人蔘桂枝湯은 鬱狂證 中證에 해당하는 처방으로 太陰病 실사와 表證의 腎陽困熱의 증세를 모두 풀고자 한 것이다.¹⁹⁾ 人蔘桂枝湯이 처방당간 계상 비록 表證인 鬱狂證을 푸는 처방이지만, 평소에 소화기가 약한 환자가 상한에 걸렸을 때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실제로 太陽病에서 太陰病으로가는 併病으로 볼 수가 있다.

『傷寒論』에서 太陽病을 잘못 下利시켰을 때 下利不止에 쓰는 처방이 葛根黃連黃芩甘草湯²⁰⁾이 있고, 人蔘桂枝湯이 있는데 葛根黃連黃芩甘草湯은 實熱로 인한 下利에 쓰는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人蔘桂枝湯은 虛寒性 下利 즉, 太陰證을 겸한 증세에 쓰는 처방으로 볼 수가 있다.

『傷寒論』의 人蔘桂枝湯은 실제로 『傷寒論』에

17)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경기도:성보사 1988:573p

18) 『辛丑本』 6-10 太陽病 外證未除而 數下之 遂下利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 人蔘桂枝湯主之

19) 『辛丑本』 6-12 中 太陽病 外證未除而 數下之 遂下利不止 云云者 亦可見 古人之於此證 用承氣湯則 下利不止故 遂變其方而 用抵當桃仁湯 太陽病 外證未除則 陽氣其力 雖有鬱抑 猶能振寒而 與寒邪相爭於表也 若 外證盡除則 陽氣其力 不能振寒而 遂爲窮困縮伏之勢也 攻下之藥 何甚好藥而 必待陽氣窮困縮伏之時而 應用耶 人蔘桂枝湯 不亦晚乎 6-16 論曰 右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20) 『傷寒論』 34條 太陽病, 桂枝證, 醫反下之, 利遂不止, 喘而汗出者, 葛根黃連黃芩甘草湯之.

서는 桂枝人蔘湯으로 쓰이고 있으며, 東武의 처방으로 들어와서는 人蔘桂枝湯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東武가 傷寒論의 내용을 잘못 알았다 라기 보다는 처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의 앞뒤를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傷寒論』의 桂枝人蔘湯은 桂枝가 앞으로 와서 表證을 푸는 처방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되며, 東武의 人蔘桂枝湯은 人蔘이 앞으로 와서 太陰證 裏寒을 푸는 逐寒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2. 人蔘陳皮湯의 변천

1) 『甲午本』의 獨蔘良崩湯

獨蔘良崩湯은 人蔘陳皮湯의 기원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慢驚風의 위급한 증세에 附子가 아닌 人蔘을 1량을 써서 陰毒證을 치료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桂皮의 사용이며, 세 번째로는 降陰의 의미를 가진 陳皮를 가미했다는 점이다.

(1) 附子가 아닌 人蔘 1兩의 사용

理中湯에서는 人蔘이 2錢 사용되었고, 人蔘桂枝湯에서는 人蔘이 1.5錢 정도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獨蔘良崩湯에 와서는 人蔘이 1兩으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小兒泄瀉慢驚風이 몇 일 사이에 발생한 急證이며 危證의 측면도 가지지만, 환자가 表裏가 모두 極衰弱한 상태까지는 아니어서 附子를 쓰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附子를 사용하지 않고 人蔘을 대량으로 1兩 사용했다는 것은 평소 太陰病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이 환자가 泄瀉가 오래되고 점차 심해지면서 慢驚風이 온 것이기 때문에 人蔘을 대량으로 써서 陽煖之氣의 근본적인 회복을 중점으로 생각한 처방이다. 陰毒慢驚風의 증세는 매우 위급한 것이 사실이나, 병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상에 아직 表裏가 동시에 손상받은 상태가 아니고 表의 氣運은 아직 남아있는 太陰證의 병이기 때문에 附子대신 人蔘을 쓴 것이다.

즉, 獨蔘良崩湯에서 人蔘을 1량이나 쓴 것은 太陰病의 오랜 경과로 胃의 溫氣가 大腸의 寒氣를 완전히 제거하기에 힘이 부족한 상태이며, 점차 脾胃의 精氣가 소멸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陽氣의

大虛한 허탈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人蔘을 1兩으로 증량한 것이다.

(2) 桂皮의 사용

獨蔘良崩湯에서 桂皮는 肉桂로 表證에서 鬱狂證의 中證과 末證, 亡陽證에서 쓰이며 裏證에서는 소음증의 理中湯계열의 처방에 주로 사용되었다.²¹⁾ 人蔘陳皮湯의 기원방인 人蔘桂枝湯에서 桂枝를 사용하고 있는데 桂枝는 주로 表證에서 輕證 처방과 太陰證 초증인 桂枝半夏生薑湯등 輕證에 주로 쓰였다. 獨蔘良崩湯의 주치를 보면 小兒泄瀉慢驚風이라 했는데 傷寒論 人蔘桂枝湯의 泄瀉보다는 더욱 위중한 상태에 쓰는 처방으로, 桂皮로 溫胃逐冷之力을 강화시킨 것이다.

즉, 獨蔘良崩湯의 桂皮는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壯脾而內外充足之力이라고 해서 太陰證에서 內外가 모두 병이 들어 升陽이 어려워지고 腎의 陰陽氣가 약화되었을 때 쓸 수가 있다.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人蔘陳皮湯에 따르면 生薑을 乾薑으로 바꾸면 溫胃逐冷之力²²⁾이 강해진다고 했으니, 이 獨蔘良崩湯의 桂皮는 人蔘陳皮湯으로 이어져서 小兒陰毒慢驚風에 裏寒이 심해서 人蔘陳皮湯 자체만으로는 逐冷하는 기운이 딸릴 때 桂皮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陳皮의 사용

陳皮는 『東武遺稿』 藥性歌에서는 錯綜脾氣之參伍勻調라 했다. 흐트러진 脾氣에 의해 升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체된 것을 짝을 맞추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²³⁾ 陳皮는 行氣시키고 順氣²⁴⁾시키는 것으로 鬱滯된 기를 내려서 降陰하는 역할을 한다.

21) 조황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경기도:집문당 2005:285p

22) 『辛丑本』 新定少陰人病 應用要藥二十四方 人蔘陳皮湯 ... 생략 ... 尤有溫胃逐冷之力 以本方 嘗治 未周年小兒 陰毒慢風 連服數日 病快愈矣 病愈後 更不服藥 再發不治

23) 조황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경기도:집문당 2005:272p

24)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경기도:성보사 1988 약성이 증진피 陳皮甘溫順氣功 和脾留白痰取紅

太陰病 泄瀉나 胃寒證을 제거하는 처방이 『傷寒論』 理中湯과 人蔘桂枝湯으로 본다면 이 두 처방에서는 溫胃만으로 충분하다고 張仲景이 보았다면, 李濟馬의 獨蔘良崩湯에서는 溫胃가 충실히 이루어지면 降陰도 저절로 될 수도 있지만, 現在의 小兒泄瀉慢驚風에서는 降陰을 따로 고려한 약물의 가미를 생각해서 陳皮를 가미한 것이다.

2) 『甲午本』의 獨蔘湯加味方

참고적으로 獨蔘湯加味方을 보면 獨蔘湯加味方은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乾癩亂關格病의 처방으로 쓰고 있다.²⁵⁾ 陰毒證과 乾癩亂關格證으로 병명은 서로 다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처방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병증도 역시 유사한 점이 많다. 獨蔘湯加味方은 少陰人이 下利를 물 같이하고 面色이 푸르고 검으며, 몸에 기운이 빠져서 졸고있는 乾癩亂關格證勢에 쓰며, 人蔘陳皮湯은 陰毒慢風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四肢厥冷하고 吐瀉하나 갈증을 느끼지 못하며 몸을 구부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려 하는 등등²⁶⁾ 두 처방은 유사한 증세를 치료한다.

3) 『辛丑本』의 人蔘陳皮湯

(1) 人蔘을 1兩을 사용

『辛丑本』의 人蔘陳皮湯도 甲午本의 獨蔘良崩湯처럼 人蔘을 1兩을 사용하고 있다. 小兒陰毒慢風의 병은 재발하면 불치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의 병으로 太陰病이 오래되면서 陽氣가 虛脫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에 東武는 陰毒證의 치료에 있어서 소멸해가는 陽氣를 보충하기위해 적극적으로 生陽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음인 保命之主를 보전하는 최후의 보루인 人蔘을 대량으로 투여해서 脾의 陽氣를 강력하게 生하려고 한 것이다.²⁷⁾ 만일 人蔘의 분량이 적으면 陰毒證의 大虛之事를 처리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이와 같이 重用한

것이다.²⁸⁾

(2) 砂仁의 加味

辛丑本 人蔘陳皮湯이 기존 처방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砂仁이 가미된 것이다. 砂仁은 定氣定魂한다고 해서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의 恒心을 神經安定시키는 효능이 있다.²⁹⁾ 했다. 또한 砂仁은 溫하며 胃腸의 작용을 도와 食慾을 돋우고, 通經을 좋게하여 安胎하고 痛證을 없앤다.³⁰⁾ 結滯를 통하게 하고 行氣해서 調中한다. 또한 砂仁의 약성중에 化銅鐵 骨鯁으로 鐵과 銅을 녹이고 뼈나 가지까지 녹여서 막힌 부분을 뚫는다.³¹⁾³²⁾ 했으니 그 結滯를 푸는 힘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人蔘陳皮湯의 사인은 脾胃에 鬱滯된 기운을 뚫어서 行氣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食滯가 되었든, 寒邪가 되었든 강력한 結滯를 풀어낸다. 結滯가 풀리면서 陰毒證이 풀리게 된다. 砂仁의 結滯를 푸는 힘으로 行氣하게 되고, 行氣를 통해서 불안정하고 흐트러졌던 기운이 陳皮의 錯綜脾氣之參伍勻調의 공능과 더불어서 中焦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이에 따라서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이 풀리게 되고 定氣定魂하게 되는 것이다. 『辛丑本』 人蔘陳皮湯에서는 砂仁을 가미함으로 鬱滯된 寒邪를 제거하며, 不安定之心의 안정상태인 定氣定魂에 중점을 둔 것이다.

(3) 附子の 不用

『甲午本』에서는 陰毒證의 처방으로 獨蔘附子理中湯이 제시되었으며, 『辛丑本』에서 陰毒證 처방으로 역시 人蔘桂枝湯과 人蔘附子理中湯을 제

28) 이제마 원저. 한동석 주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대원출판사 2006:368p

29) 류순섭. 사상의학통해. 서울:도서출판 대학서림 2006:48p

30)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경기도:성보사 1988 약성이 중 砂仁 溫 養胃進食, 善通經 胎安痛息

31) 30)과 동일

32) 歷代中醫藥性匯解 《本草綱目》: 韓愨《醫通》云: 腎惡燥, 以辛潤之. 縮砂仁之辛, 以潤腎燥. 又云: 縮砂屬土, 主醒脾胃, 引諸藥歸宿丹田. 香而能竄, 和合五臟沖和之氣, 如天地以土爲沖和之氣. 故補腎藥用同地黃丸蒸, 取其達下之者也. 又化骨, 食草木藥及方土煉三黃皆用之, 不知其性何以能制此物也? 補肺醒脾, 養胃益腎, 理元氣, 通滯氣, 散寒飲脹痞, 噎膈嘔吐, 止女子崩中, 除咽喉口齒浮熱, 化銅鐵骨鯁.

25) 『甲午本』 7-64 ... 중략. 又 少陰人 小兒 一人 下利清水 面色青 氣陷如睡 用 獨蔘湯 加生薑二錢 陳皮 砂仁 各一錢 日三四服 數日後 下利十餘行 大汗解

26) 25)와 동일함.

27) 조항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경기도:집문당 2005: 28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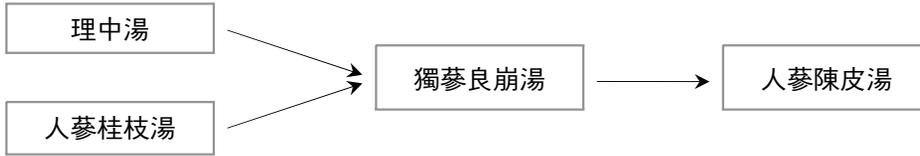


Figure 1. The origin and changes of *Insamjinpi-tang*(人蔘陳皮湯)



Figure 2. The constructive principles of *Insamjinpi-tang*(人蔘陳皮湯)

시켰다. 附子が 들어간 처방인 獨蔘附子理中湯과 人蔘附子理中湯이 있고, 附子が 없는 人蔘陳皮湯과 人蔘桂皮湯이 있다. 즉, 附子를 중심으로 처방의 계열이 달라지는 것이다.

太陰病 陰毒證은 脾胃의 陽氣가 크게 손상받은 것으로 溫胃하면서 大腸의 寒氣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목적으로 附子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東武는 오히려 人蔘陳皮湯에서 附子를 제외시켰다. 이것은 東武의 服藥의 원칙인 安臟本常之氣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증세에 藥力이 升降緩束之力에 적당나가 過한가 不足한가를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다.³³⁾ 실제로 附子는 亡陽危病證과 少陰證에 사용하는 약물로 小兒陰毒慢風의 치료에 附子가 없는 人蔘陳皮湯을 쓴 것으로 보아 아직 胃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太陰病의 상태로 附子를 쓰기에는 과한 것으로 본 것이다. 臟氣와 藥氣의 균형에 있어서 아직 臟의 기운이 있고, 다른 약

재(人蔘 陳皮등)으로 升降緩束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表裏가 모두 병들어 危急한 상태에 사용하는 附子가 들어가면 陽氣를 급히 일으켜 冷氣를 바로 驅逐시킬 수는 있지만, 附子가 없는 人蔘陳皮湯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병기가 긴 陰毒證에서 人蔘의 대량투여를 통한 脾陽氣의 안정적 보강을 통해서 生陽의 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즉, 東武가 『辛丑本』에서 생각한 陰毒證의 치료는 中焦의 寒邪를 급히 몰아내는 것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生陽의 기를 마련하고 損傷된 脾의 陽氣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했던 것이다.

이상의 人蔘陳皮湯 변천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하면 Figure 1과 같다.

3. 人蔘陳皮湯의 構成原理

人蔘陳皮湯의 기원과 변천과정에서 처방의 構成原理를 나타낸 그림이 Figure 2이다.

- 1) 太陰病陰毒證에서 병이 심해진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5일이상의 탈수와 탈진 상태가 지난 것이다. 太陰病의 오랜 경과로 脾胃가 지쳐서 大

33) 『草本券』病辨 第六統 11-14 臟氣主也 藥氣客也
 臟氣三倍而藥氣一倍則 其病 卽遁也
 臟氣二倍而藥氣一倍則 藥力 易達也
 臟氣與藥氣相敵則 勝負之數 未可知也
 臟氣與藥氣對敵則 倒伏之變 可立待也
 所以少陽之水銀 不可以輕用 少陰之芪附 不可以屢用

腸의 寒氣를 완전히 제거하기에 역부족의 상태이며, 점차 精氣가 소멸해가는 단계이다. 이로 인해 東武는 陰毒證의 治療에 있어서 消滅해가는 陽氣를 보충하기위해 적극적으로 生陽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人蔘을 대량으로 투여해서 脾의 陽氣를 강력하게 生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人蔘을 一兩으로 重用한 것이다.

- 2) 人蔘陳皮湯의 砂仁은 陰毒證에 結滯를 푸는 강력한 힘으로 막혀있는 寒邪를 풀어내고 行氣해서 定氣定魂하므로 靜躁而臥 甚則咽痛 鄭聲 등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환자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陳皮는 順氣之濟로 降陰을 주도해서 溫胃而降陰의 太陰病의 治療를 완성하는 것이다. 大棗로 均衡을 상실한 榮衛를 조화하며, 손상된 津液의 보강도 역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大棗는 百藥을 調和시키는 大棗의 효능³⁴⁾과 吐瀉로 부족해진 陰液을 보충하는 관점에서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人蔘陳皮湯의 약제를 중심으로 基源과 變遷과 이에 더불어 처방구성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基源方인 人蔘桂枝湯은 傷寒論에서는 桂枝人蔘湯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東武가 어떤 이유로 桂枝人蔘湯을 人蔘桂枝湯으로 바꾸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문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人蔘의 작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꾼 것인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乾癩亂關格病의 처방인 獨蔘湯加味方과 小兒陰毒慢風의 처방인 人蔘陳皮湯은 서로 매우 유사한 처방인데 乾癩亂關格病과 陰毒證과의 구분과 경계를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 지도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結 論

1. 人蔘陳皮湯의 基源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人蔘陳皮湯은 傷寒論의 理中湯과 人蔘桂枝湯으로부터 人蔘 乾薑등으로 溫胃해서 中焦의 陰

實之氣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2. 人蔘陳皮湯의 變遷過程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人蔘陳皮湯의 원형은 『甲午本』 獨蔘良崩湯이다. 獨蔘良崩湯은 소음인 保命之主의 최후의 보루인 人蔘을 1兩으로 重用해서 꺼져가는 脾胃의 陽氣를 보강하면서 生陽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다. 太陰病에서 腹痛下利하면 병이 풀려야 하는데 반만 풀려서 胃의 溫氣가 大腸의 寒氣를 완전히 밀어내기 역부족이어서 陰毒證으로 진행되었을 때, 精氣가 점차 소멸되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人蔘 1兩을 사용한 것이다.
- 2) 陰毒證에 砂仁을 가미함으로써 鬱滯된 寒氣를 풀어내고 소통시켜서 陰毒證에서 발생하는 精神의 異狀狀態를 개선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했다.
- 3) 陳皮는 獨蔘良崩湯에 이어져왔는데 溫胃만으로는 陰毒證을 해결하기 어렵고, 順氣시키고 行氣시켜서 降陰까지 이루고자 한 것이다.

3. 이에 人蔘陳皮湯의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人蔘陳皮湯은 少陰人 保命之主의 핵심인 人蔘으로 꺼져가는 脾胃의 陽氣를 大補해서 脾胃 陽氣의 허탈상태를 극복하며, 生薑으로 胃의 寒氣를 떨치고 發表해서 調中하며, 砂仁으로 막힌 것을 疏通시키고 鬱結을 풀어서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을 안정시키고 陳皮로 흐트러진 脾氣의 升降에 均衡을 맞추어서 順氣시켜서 降陰을 이루고, 吐瀉로 인해 부족해진 津液을 大棗로 보충하고, 榮衛를 조화시켜서 太陰陰毒證도 溫胃而降陰하는 원칙에 의해서 少陰人의 陽煖之氣를 보존하면서 治療한 것이다.

VI. 參考文獻

34)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경기도:정보사 1988 약성가 중 大棗 大棗味甘和百藥 益氣養脾滿休疇

1. Song IB, Koh BH, Kim DR, Lee EJ, Lee SG, Lee JH. Clinical handbooks of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iterature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 2009. (Korean).

2. Cho HS. Method of interpretations of Sasang (constitutional) prescrip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5;7(2): 21-44. (Korean).
3. Park SS. The study on The 『DongMuYooGo YakSung Ga』. J Sasang Constitut Med. 2002; 13(2):8-27. (Korean).
4. 조황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경기도 : 집문당, 2005.
5. 김택곤외 9명, 동의소아과학, 서울 : 도서출판 정담, 2002.
6. Lee JM(translation with notes by Park S.S)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won. KyungKi-do. Jipmundang Publication. 2005 (Korean).
7.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경기도 : 성보사. 1988.
8. 이제마 원저, 한동석 주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 대원출판사, 2006.
9. 장준경 원저, 문준전의 11인 해설, 상헌론정해, 서울 : 한의문화사. 2003.
10. 원지상 원저, 김정렬 양재원 정준민 한동윤 편역, 동의사상신편, 서울 : 도서출판 정담, 2002.
11. 이제마저. 량병무, 차광석번역. 東武遺稿. 서울 : 해동의학사, 1999.
12. 류순섭. 사상의학통해. 서울 : 도서출판 대학서림 2006.